

탄신 42주년기념

의암 주논개제전

(제28회 장수군민의날)



- 일시 : 1995. 10. 25 ~ 27
- 장소 : 의암사. 군내일원
- 주최 : 의암주논개제전위원회. 장수군
- 주관 : 장수문화원
- 후원 : KBS. 전북일보사. 전북문화예술진흥회



의암 주논개 약사

- 1574년 9월 3일(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출생.
- 부친은 주달문이고 모친은 밀양박씨로 학덕이 높은 집안임.
- 13세에 부친 별세, 편모슬하에서 자람.
- 숙부 주달무가 김홍헌의 민며느리로 팔려고 하자 모녀는 모친의 친정인 경상남도 안의현으로 피신.
- 김홍헌의 고소로 장수현 포리에 피체(被逮) 취조 결과 무죄방면, 무의무탁한 논개님을 최경희 현감이 부인 김씨의 시중을 들게함.
- 김씨 부인이 사망하자 1591년(선조 24년) 최현감의 후실로 들어감.
- 1592년(선조 25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
- 최현감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제주받자 논개님 진주성으로 옮김.
-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 최경희 장군 남강에 투신 순국.
- 동년 7월 7일 축석루에서 왜군 승전연에 기생으로 가장 연회에 참석하여,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유인 남강에 투신 순절.
- 그후 나라에서 의암(義巖)이라는 시호(諡號)를 하사.

주논개님의 유적



▲ 장수생장향수명비



▲ 의암사 영정각



▲ 주논개 생가(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 의암사 기념관



▲ 생가지 사적불망비

주논개님이 태어나서 남강에서 순절하기까지



▲ 論介 生長 過程

선조 (宣祖) 21년(1588) 8월 이 지방사람 김풍헌(金風憲)이 논개(論介)의 인품에 탐을 내어 논개의 숙부인 주달무(朱達武)를 돈으로 매수하여 백치인 아들과 일방적으로 혼인을 시키려 했다. 그러나 논개 모녀가 완강히 반대하고 한편 위 주달무는 도망하자 김풍헌은 논개 모녀를 상대로 장수현감에게 소장(訴狀)을 올렸으며 그 결과 박씨 부인은 억울하게도 5년간 관가(官家)에 얽매이게 되었다. 이에 논개가 어머니를 대신하겠다고 간청하자 현감 최경회(崔慶會)는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모녀를 방면하였다.



▲ 晉州城 싸움

선조 (宣祖) 26년(1593) 6월 29일 불행하게도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고 평생을 의지하려던 최경회(崔慶會) 부군(夫君)마저 전사(戰死)하자 논개는 슬픔으로 날을 새웠다. 그러자 승리에 도취한 왜병들이 7월 7석을 기해 축석루(矗石樓)에서 승전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논개는 잔치마당에 나갔다.

한참 흥이 돋구어질 무렵 그는 왜장 게다니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危岩으로 유인하여 그의 허리를 껴안고 함께 절벽아래 남강(南江)으로 몸을 던졌다.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나라를 지킨 거울이 된 것이다.

논개 는 선조(宣祖) 7년(1574) 9월 3일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훈장 주달문(朱達文)과 밀양박씨(密陽朴氏)사이에 태어났다. 이때가 마침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여서 모두들 특이한 사주를 타고 낳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논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술(戌)은 개(犬)을 뜻하기 때문에 이름자에 “개”를 넣은 것이다. 논개(論介)는 천품(天稟)이 영리하고 자태가 아름다웠으며, 아버지가 훈장으로 계시는 마을 서당(書堂)에서 나이 10여세가 되기까지 한문을 배웠다.



▲ 誣告判決 받는 論介 母女

선조 (宣祖) 25년(1592) 왜적 3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 장수현감 최경회(崔慶會)는 다음해 4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 兵馬節度使)로 임명되어 진주(晉州)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논개도 최현감에게 간청하여 함께 따라 갔다. 당시 전세(戰勢)가 불리하여 후퇴하던 왜군은 퇴로를 막고 있는 진주성을 공격키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성내(城內)의 모든 관군과 의병 및 민간인이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반격하였다. 아녀자들도 모두 나서서 치마폭으로 돌맹이를 나르고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 오르는 왜병에게 퍼부으면서 최후까지 싸웠다.



▲ 晉州 南江 殉死

탄신 421주 의암 주논개제전 행사 안내

제 28회 주민의 날

전 야 제

행 사 명	일 정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전국노래자랑 고향의 밤 축등행렬 불꽃놀이 축하공연 풍물야시장	10. 25(수)	13:00 ~ 15:00	120	특설무대 군민회관 시내공원 남산공무 특설야암	
		18:00 ~ 19:00	60		
		19:00 ~ 19:30	30		
		19:00 ~ 19:30	30		
		19:30 ~ 21:00	90		
		10. 25 ~ 10. 26	2일		

본 행사 및 문화행사

행 사 명	일 정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제례봉행 참배식 기념 고전무용 사물놀이,가야금병창 농악시연 행글라이더 군민위안공연 논개선발 카퍼레이드 한시백일장 경노잔치 전라예술단공연 의암시화전 궁도대회 의암백일장	10. 26(목)	09:00 ~ 09:30	30	영정각 영정각 의암사사 의암사사 의암사사 의암사주 의암사주 의암사주 의암사주 의암사주 의암사주 의암사주 의암사주 의암사주 의암사주 의암사주	
		09:30 ~ 17:00	1일		
		10:00 ~ 11:00	60		
		11:00 ~ 11:20	20		
		11:20 ~ 12:00	40		
		12:00 ~ 13:00	60		
		13:00 ~ 13:30	30		
		13:00 ~ 15:00	120		
		15:00 ~ 17:00	120		
		17:00 ~ 17:30	30		
		10:00 ~ 16:00	360		
		11:30 ~ 14:00	150		
		17:30 ~ 19:00	90		
		10. 25 ~ 10. 26	2일		
		10. 27(금)	09:00 ~ 18:00		
10. 20(금)	10:00 ~ 16:00	1일			

체육 민속 행사

행 사 명	일 정			장 소	비 고
	월 일	시 간			
400계주(남, 여), 마라톤, 테니스, 축구, 배구, 씨름, 줄다리기 고리걸기, 배드민턴, 게이트볼, 합동줄넘기	10. 25(수)	09:00 ~ 17:00	1일	장수중학교 공설운동장	

식 사 (式辭)



의암주논개제전위원장
장 수 문 화 원 장
김 진 영

山高水長の 고장 義巖고을에서 忠·孝·烈의 表象이신 義巖 朱論 介任의 誕辰 421周 祭典과 第28回 郡民의 날 行事를 갖게 된 것을 군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과 출향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개님은 四甲戌이란 특유한 四柱를 타고 태어나서 忠과 烈을 온 몸으로 昇華시키고 殺身成人하신지 올해로 402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군민은 이 날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任의 고매한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해 제례봉행을 비롯 생가에서 사당까지 논개 열 이어받기 계주, 재향인 출향인이 한 데 어우러지는 고향의 밤, 논개 선발, 백일장, 국악공연, 궁도대회 등 20여 민속 문화 예술행사가 나흘에 걸쳐 사당과 군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님의 열로 뭉쳐서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한마당 큰잔치를 벌여 대동의 큰 북을 두둥둥 울립시다. 민주도로 실시한지 두번째 맞는 이번 제전은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전국 차원의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군민이시여! 우리는 의암제를 해마다 개최하여 온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자존적 문화군민의 역량을 기릅시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국가적 행사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번영의 행진곡을 화합의 반주에 맞추어 소리높여 합창합시다. 끝으로 이번 제전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KBS 남원방송국과 전북일보사 그리고 제전위원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5. 10. 26.

義巖朱論介祭典委員會
委 員 長

金 鎮 泳

기 념 사



장 수 군 수
김 상 두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국 여
인상의 귀감이시며 우리 고장의 자랑인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 421
주년을 경축하고 제28회 군민의날 기념식을 알차고 내실있게 거행된
것을 온 군민과 함께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 출범후 처음 갖는 제전행사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고 군민 총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게 되어 그 뜻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공
헌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군민의 장을 받으신 네 분에게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우리 지역은 옛부터 충·효·열을 실천한 의암
주논개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애국선열들을 배출한 고장으로 우리
군민 모두는 높은 긍지와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고장을 지키며
살아 왔습니다.

금년부터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논개사당을 성역화 하여 논개
님의 얼을 더욱 승화계승 발전시켜 애국충절의 산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제전행사가 개최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신 제전위
원을 비롯한 민간단체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10. 26.

장 수 군 수 김 상 두

축 사



전라북도지사
유종근

자랑스런 장수군민 여러분!

오늘 온누리에 풍요로움이 넘치는 이 가을에 의암 주논개의 탄신 제421주년을 기리는 제전과 함께 스물여덟번째 군민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산악지대에 자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특성을 살려가면서 오늘의 풍요를 거두어 드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애써오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일찍이 난세에 충신이 나온다고 했듯이 4백여년전 임진왜란이 고장에서는 많은 애국지사가 나와 국난을 물리치는데 목숨을 바쳤고 그 가운데에서도 의암 주논개는 애국충정의 일념으로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바친 조국의 수호신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 충의는 만고에 빛나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장수군민들이 논개를 추앙하고 군민행사를 갖는 것은 그의 충의정신을 받들어 오늘에 되살리므로써 애국애족정신을 높이고 보다 잘사는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도 이제 4개월이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모든 문제를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때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애향심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간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보다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방화동 가족촌휴가촌 조성에 따른 민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간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소득증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군민 모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끈질긴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수군민의 끈질긴 자주 의욕과 강인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거듭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랑스런 장수군민 여러분!

일찍이 이 고장의 애국지사들이 보여준 긍지와 충의정신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여러분의 그 충정이야말로 이 고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도에서는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을 만들기 위해 [유서깊은 역사를 바로 알고 계승하자]는 등 7대 기본시책을 수립,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여러분들이 논개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 운동이 전북인의 긍지를 되찾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의 진취적 기상을 높이는 정신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수군민 여러분이 [내 고향의 인재를 키워나가고], [서로 도우며 튼튼한 지역사회]를 살려 나간다면 이는 바로 장수군의 발전일 뿐만아니라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수군민 여러분은 지난날 충의의 고장답게 높은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간 경쟁에서 앞서가는 잘사는 장수군을 만드는데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와 기념행사를 통하여 여러분은 장수군민의 굳센 단합과 화합을 다지며 즐거운 한마당 잔치속에 내일의 영광을 기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신 제전위원회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축하를 보내드리며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5. 10. 26.

전라북도지사 유 종 근

축 사



국 회 의 원
황 인 성

존경하는 고향 어르신, 그리고 친애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탄신 421주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8회 장수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시대의 국가적 비운을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침략자를 온몸으로 가로막아 구국의 길을 걸었던 여인의 충절과 위대한 순국정신에 우리 모두 머리숙여 우르러 모십시오.

의암 주논개님은 그렇게 숭고한 정신으로 나라사랑의 업적을 남기셨기에 저희 후손들은 전복인으로서의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오직 이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의암 주논개님”의 꽃다운 이름은 장수고을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며, 고귀한 열정과 거룩한 희생정신을 이어온 우리 백의민족은 주논개님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새로운 결단과 화합, 변화와 개혁 속에서 21세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도약과 힘찬 비상으로 전 군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더욱 자랑스럽고 더욱 발전하는 고장을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따스한 온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장수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전승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10. 26.

국 회 의 원 황 인 성

축 사



장수군의회의장
홍 순 목

색색동이로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만큼이나 아름다운 장수!
팔대종산중 하나인 광활한 갈대 숲이 있는 장안산을 필두로 노령과
소백이 만나 우뚝 선 팔공산 자락에 풍요로운 농경 문화속에서
영겁의 세월을 지켜온 장수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의암 주논개님 탄신 421주년 기념일이며, 우리의
날이기에 군민 모두가 한데 어울어진 한마당 잔치속에서 함께 즐
거워하며 경축합니다.

우리의 고장 장수!

아름다운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 의기(義氣)를
세워 내 조국 구하기에 앞장섰고, 효·열을 중요시해온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바로 의암 주논개님이 나라가 왜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열사도
어려운 당시의 상황에서 일개 여인의 몸으로 대의를 판별 거룩한
죽음을 택한 숭고한 정신이 군민의 몸속에 흐르고 있으며 오늘도
도도히 남강 젓줄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군민 여러분!

우리 고장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오염되지 않은 산과 맑은 물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장수는 밝은
미래가 약속된 고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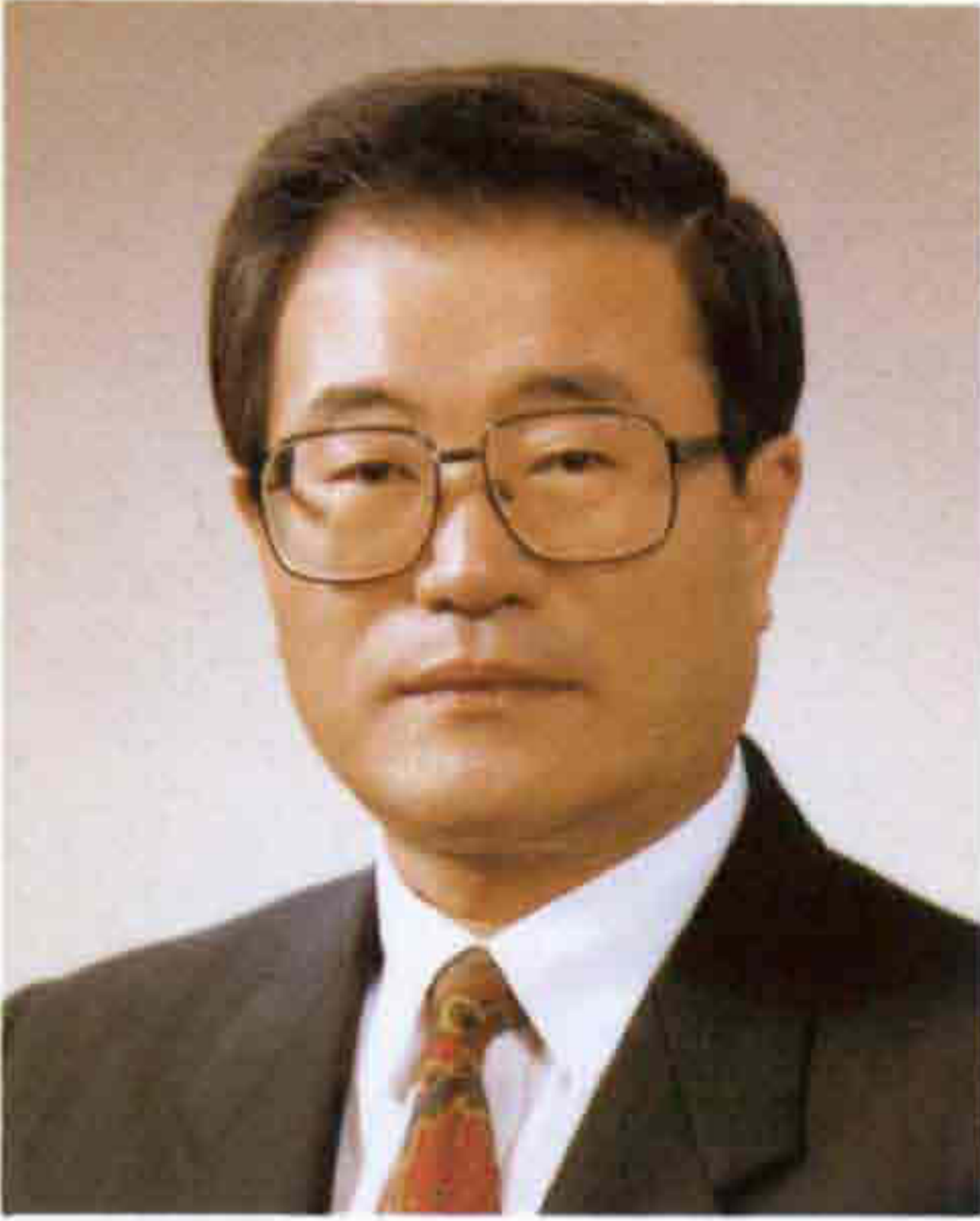
우리 모두 함께 가꾸고 오늘을 기회로 내고장 아끼기, 만들기에
한마음이 된다면 오늘의 풍성한 잔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 군민이 이왕 한자리에 모였으니 모두는 주인의 자격으로
손에 손을 잡고 더욱 성숙된 만남을 축복하며 마음껏 웃고 즐기는
시간 되시길 기원하면서 장수의 2000년대를 향해 용기와 희망을
가집시다.

1995. 10. 26.

장수군의회의장 홍 순 목

축 사



서 초 구 의 회 의 장
정 응 섭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의암 주논개 탄신 제 421주년 제전과 제28회 장수군민의 날을 40여만 서초구민과 함께 삼가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장수군은 일찍이 역사에 길이 새겨진 출중하신 명현(明賢), 명장(明將)을 수많이 배출하셨고 특히 의암 주논개의 살신애국(殺身愛國)의 정신은 멀리 진주 남강에까지 새겨져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룩한 애국선렬(愛國先烈)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삼절(三節)의 고장,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라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도시화에 찌든 우리들이 가장 많이 즐겨찾고 산교육의 장으로 매우 적합한 곳이 바로 이곳 장수(高山長水)라고 믿습니다.

예로부터 충의(忠義)와 학문(學問)을 숭상하며 애국열사와 선현들의 숨결이 스며든 유적과 명소들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내려오고, 장수사과와 오미자를 비롯한 무공해 명산품들은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자연휴양림과 계곡(山河), 잘 가꾸어진 자연풍광과 휴양촌들은 장수의 순수하고 다정한 인심과 함께 오늘날 보기드문 천혜의 자연보고(自然寶庫)이기도 합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보다 뜻깊게 하는 군민 잔치에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여 화합하고 결속하여 전진하는 신명나는 한마당, 신바람나는 장수가 되도록 승화시켜 지역발전과 군민단합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날의 훌륭한 전통과 명예를 존중하고 산자수려한 이 고장을 지키며 다듬고 가꾸어가는 군민 여러분께 재삼 존경을 드리며, 짜임새 있고 규모있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통하여 옛것을 오늘에 되살리고 역사에 반추시켜 모두가 지키고 살아갈 여러분의 고향, 장수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여 너와 내가 없이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 다같이 협조합시다.

이번 제전행사를 계기로 장수지역의 큰 발전과 장수군민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5. 10. 2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정 응 섭

의암 주논개 제전위원회 고문 및 위원명단

고 문 : 황인성(국회의원), 김광수(국회의원), 홍순목(군의회회장), 김영채(경찰서장),
오윤근(교육장), 이경해(도의회 의원), 김명수(도의회 의원), 최준호(재경향우회장)

명예위원장 : 김상두(장수군수)

위 원 장 : 김진영(장수문화원장)

위 원 : 김용기, 이재식, 이영기, 장명열, 최세양, 박현규, 윤수남, 이종열, 박청경, 김좌형,
권희선, 오봉수, 황용남, 박봉기, 박만덕, 이재택, 신금암, 김인봉, 장문엽, 최봉철,
마순익, 강태순, 정희택, 김홍기, 박성수, 안성호, 박성근, 신현구, 최영희, 오병우,
이성주, 권중남, 최기현, 최영훈, 최병구, 이명재, 하태준, 문택현, 권종소, 이용재,
장재영, 이희석, 김순홍, 김병열, 이인화, 이인호, 양형식, 이강섭, 김정수, 이창희,
임채천, 육동수, 이갑동, 박준택, 송승현, 김홍섭, 한순태, 이택열, 장창엽, 한규성,
신원호, 김무생, 박선근, 정익수, 진기종, 강충희, 양해도, 황현엽, 이동주, 양래철,
최재근, 한병두, 임복순, 김연자, 김복길, 김국자, 이택영, 강대현, 박성근, 박희목,
윤용섭, 양병하, 고두영, 박관수, 유일권, 신공식, 강도식, 송만석, 문진기, 최용성,
한용수, 박형모, 양우홍, 김광덕, 김종영, 김현기, 이승하, 성영열, 최광진, 유기종,
유동승, 김홍곤, 양장식, 염기섭, 이진소, 이정문, 이석조, 유형철, 최영식, 박동식,
이희자, 김광규, 어근식, 김용운, 이봉원, 이석우, 장경호, 김완진, 김종운, 최이봉,
김인곤, 원양희, 한원희, 황동수, 오용인, 임재봉, 이광진, 김상근, 김두봉, 유주상,
박병석, 김길현, 이경용, 강병옥, 홍성택, 송재홍, 이왕주, 유기홍, 손천엽, 정재중,
윤정기, 장관빈, 이상규, 장예현, 김진식, 권희완, 임성택, 서성기, 홍순태, 차창석,
양희영, 권희철, 장철섭, 한병태, 박성근, 김재하, 고희기, 오치황, 노영일, 양귀홍,
이병만, 송병석, 김기수, 윤창래, 권인주, 장원선, 이만춘, 권희원, 마옥동, 한정훈,
김종열, 김홍순, 홍봉길, 김상수, 송재득, 임순승, 노순옥, 법 률, 이종명, 김영철,
서정태, 이홍길, 정상윤, 오 평, 고경만, 이향순, 이정남, 노순예, 김병규, 김명수,
최용득, 김인배, 김경곤, 이홍관, 최규원, 허정욱, 양귀석, 박용덕, 한규송, 김창영,
김진홍, 이임현, 정수영, 윤장철, 김성진, 한 근, 유창열, 양병조, 장성우, 양기준,
육종윤, 권정호, 이영근, 박홍민, 박용근, 양성원, 박영남, 최병택, 조운제, 채규석,
홍영순, 임재성, 김양순, 한동수, 최인식, 강종인, 유윤상, 권희선, 이희두, 이성현

의암주논개제



전 행사 발자취



내고장 자랑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전북기념물 제46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보물 272호)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장수삼절(長水三節)

◀ 논개사당(論介祠堂)

- 1846년 장수현감 정주석이 사당 건립
- 1943년 2차 세계대전시 소실
- 1954년 군민성금으로 재건
- 1955년 함태영 전 부통령 현판 휘필
- 1974년 장수읍 두산리 산 3번지 현위치로 이전

◀ 장수향교(長水鄉校)

- 1407년 조선조 어명으로 창건, 대성전, 부강문은 창건당시 원형이 보존된 팔포형 건물임.
- 정유재란시 왜군이 향교를 불태우려 하자 충북 정경손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 왜장이 이에 감복 침입말라는 글을 정문에 붙여 화를 면함.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건물임.

◀ 타루비각(墮淚碑閣)

- 1678년(조선 숙종4년) 장수현감 조종면이 전주 감영에 가기위해 말을 타고 이곳에 이르렀을 때,
- 숲속에 있던 장끼(평)가 날자 말이 놀라 뛰어 현감과 말이 함께 하천에 빠져 목숨을 잃음.
- 이에 통인은 다하지 못한 책무를 깨닫고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평과 말을 그리고, “타루”라 두글자를 쓰고 현감을 따라 순절.
- 이를 기리기 위해 타루비를 세움.

관광명소



• 장안산

조선 8대 종산으로 불리운 장안산(1,237m)은 정상 주능의 갈대밭이 유명하며 1일 등산코스로 각광 받고 있음.

• 덕산계곡

장안산 군립공원으로서 용소와 기암괴석, 단풍 등이 조화를 이뤄 매년 피서객이 몰려오고 있음

• 방화동 휴가촌

국내 최초로 지정된 가족단위 국민관광지로서 자동차 야영장 등 공공시설을 마무리하고 민자 사업을 본격 추진, 급증하는 가족단위 관광에 대비하고 있음.

• 단풍의 절경 지지 계곡

28km의 긴 계곡 주변에는 동화댐, 삼거폭포, 장안산, 논개 생가터, 대곡제 등 많은 관광 자원이 널려있어 춘, 하, 추, 동 절경이 펼쳐지며 특히 아름다운 가을단풍은 잘 그려진 한폭의 그림을 연상케 함.

• 토옥등 계곡

남 덕유(1,508m) 깊은 계곡의 맑은물, 바위, 원시림과 양악호, 용연정 등 수려한 자원을 고루 갖춘 비지정 관광지, 계곡 및 양악마을을 숙박제공형 관광 민박촌으로 개발중.

• 와룡자연휴양림

성수상 와룡계곡의 자연림내에 야영장, 삼림욕장, 체련시설, 등산로 등이 갖추어져 있어 산행을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자연휴양 적지.

명 산 품

• 장수사과

토양이 기름지고 물빠짐이 좋으며 고랭지의 고온량 지수가 낮은 우리 고장은 천혜의 사과재배 적지, 장수에서 생산한 사과는 타 지역에 비해 향이 좋고 당도가 월등히 높아 전국 명산품으로 자리잡아 성장 작목으로 재배 면적을 늘려가고 있음.



• 오미자

고산 약용식물로 시고, 달며, 짧고, 쓰고, 매워 오미자라 하며 동의보감에 의하면 오미자는 오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갈증과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함.



• 곱돌석기

장수에서만 생산되는 곱돌로 만든 석기 제품은 전통과 역사가 깊고 돌의 질이 좋아 전국에 널리 알려진 특산품으로 여기에다 음식을 지으면 잘 식지 않고 맛 또한 일품.



탄신 421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8회 군민의 날



주식회사 용성통상

代表理事 金佑星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 258-10
전화 : (0656) 351-2018, 2019



우진산업주식회사

代表理事 李鎮沼

597-830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316-2
전화 : (0656) 351-0908
 351-1018
 직통 353-1809
휴대폰 : 011-659-8184

탄신 421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8회 군민의 날



株式會社 東南레미콘



대표이사

유 동 승

내 집 짓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공 장

전북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 280

전 화 : (0671) 626-0909

(0656) 353-0115~7

팩 스 : (0656) 353-0118

● 사 무 소

전북 남원시 동충동 33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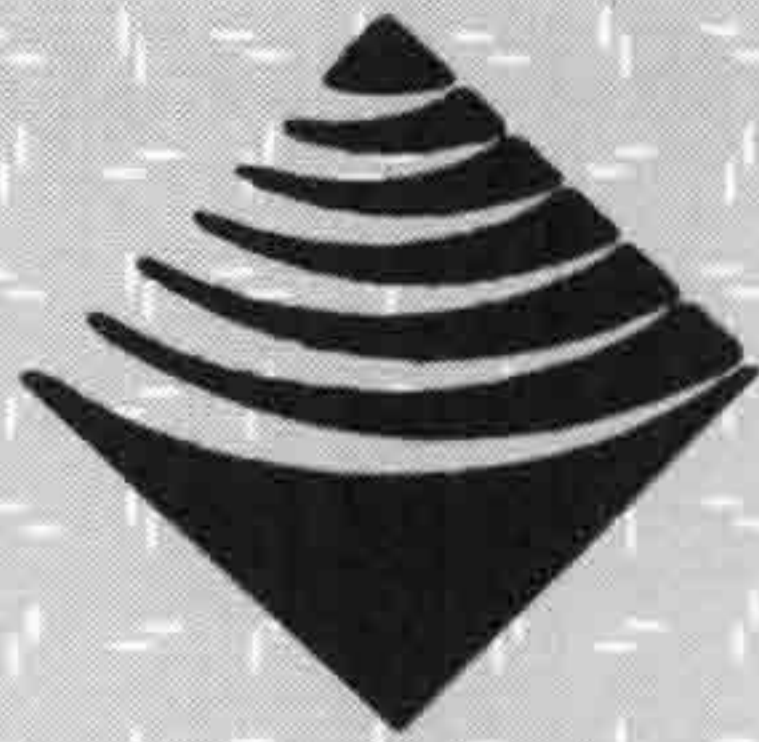
전 화 : (0671) 31-0909

(0656) 626-0909

팩 스 : (0671) 33-9669

탄신 421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8회 군민의 날

빠른 창구, 친절한 은행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북 은 행

장 수 지 점

支店長 **韓 正 勳**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56-10 ☎ 597-800
Telephon : (0656) 3 5 1 - 0 7 7 7 ~ 8 0

장수축산업협동조합

조 합 장 **장 재 영**

장수읍 장수리 483의 7
전화 : (0656) 3 5 1 - 2 3 9 0 ~ 2

탄신 421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8회 군민의 날

양담배 앓피우는
고장 장수!

한국담배인삼공사

장수영업소

소장 김주식

새롭고 활기찬 장수교육

長水教育廳

교육장 오윤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12

전화 : 학무과 (0656) 3 5 1 - 2 1 8 4

관리과 (0656) 3 5 1 - 5 4 8 3

팔공청년회

회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회장 : 신공식	직전회장 : 박영종
부회장 : 김종술	부회장 : 이기준
사무장 : 장영수	총무교육부부장 : 조금현
홍보부부장 : 이성춘	지역사회부부장 : 황종호
문화체육부부장 : 허원인	

“농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농협임직원이 힘껏 뛰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박성수	
장수농협 조합장	한순태	번암농협 조합장 장창엽
장계농협 조합장	이택열	천천농협 조합장 한규성

탄신 421주년 의암 주논개 제전 및 제28회 군민의 날

(주) 동서레미콘

대표이사 김 홍 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 103의 1
전화 : 352 - 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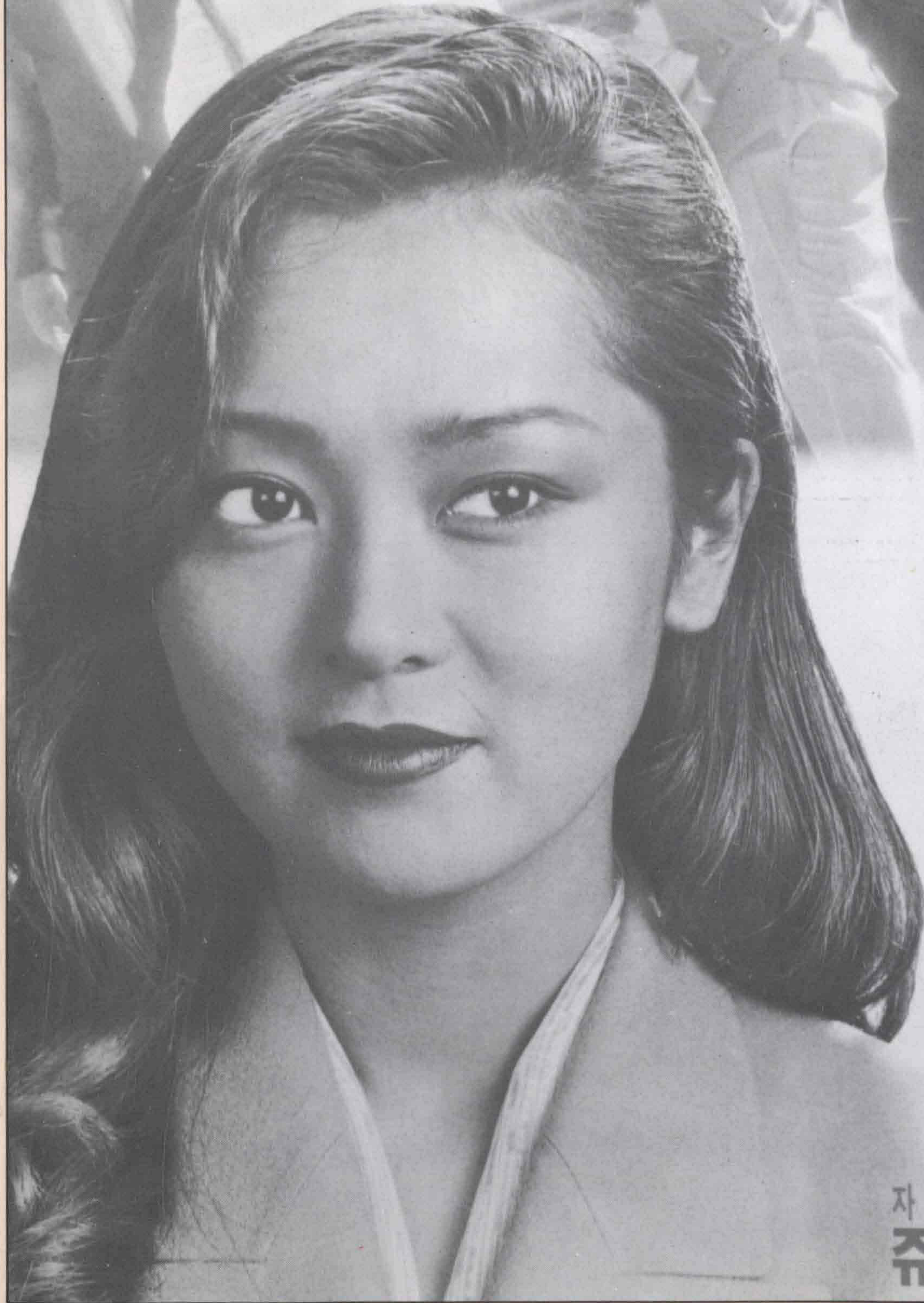
全州인켈販賣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東 勳

全州市 德津區 西老松洞 602-28
電話 : (0652) 83 - 6001 ~ 3

JULIA
쥬리아

우린
가
좋
아
하
는
여
자!



자연보습화장품
쥬리아수세미

행 사 계 획

구분	행 사 명	일 정			장 소	비고
		월 일	시 간			
전 야 제	전국 노래 자랑	10. 25(수)	13:00 ~ 15:00	120	특설무대	
	고 향 의 밤		18:00 ~ 19:00	60	군민회관	
	축 등 행 렬		19:00 ~ 19:30	30	시 내	
	불 꽃 놀 이		19:00 ~ 19:30	30	남산공원	
	축 하 공 연		19:30 ~ 21:00	90	특설무대	
	풍 물 야 시 장		10.25 ~ 10.26	2일	의 암 사	
본 행 사 및 문 화 행 사	제 레 봉 행	10. 26(목)	09:00 ~ 09:30	30	영 정 각	
	참 배		09:30 ~ 17:00	1일	영 정 각	
	기 념 식		10:00 ~ 11:00	60	의 암 사	
	고 전 무 용		11:00 ~ 11:20	20	의 암 사	
	사 물 놀 이 창		11:20 ~ 12:00	40	"	
	가 야 금 병					
	농 악 시 연		12:00 ~ 13:00	60	"	
	파라 그라 이터		13:00 ~ 13:30	30	의암사주변	
	군민 위한 공연		13:00 ~ 16:00	180	특설무대	
	및 논 개 선 발					
	카 피 레 이 드		16:00 ~ 16:30	30	시 내	
	한 시 백 일 장		10:00 ~ 16:00	360	유림회관	
	경 노 잔 치		11:30 ~ 14:00	150	남산공원	
	전라예술단공연		16:00 ~ 17:30	90	특설무대	
의 암 시 화 전	10.25 ~ 10.26	2일	기념관앞			
궁 도 대 회	10.27 (금)	09:00 ~ 18:00	1일	벽 계 정		
의 암 백 일 장	10.20 (금)	10:00 ~ 16:00	1일	생 가 지		
체육 민속 행사	400계주 (남, 여) 마라톤, 테니스 축구, 배구, 다리기 씨름, 줄다리기 고리걸기, 매드민턴, 게이트볼, 합동줄넘기	10. 25(수)	09:00 ~ 17:00	1일	장수중학교 공설운동장	

郡 民 憲 章

우리 長水郡民은 자랑스러운 三節의 빛난 얼을 繼承하고 밝고 맑은 心性으로 山紫水明한 내고장을 豊饒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1. 우리 郡民은 自由를 尊重하고 責任과 義務를 다하여 民主文化를 꽃피운다.
2. 우리 郡民은 良心과 信義를 지키고 協同奉仕하며 公共秩序를 生活化 한다.
3. 우리 郡民은 勤勉 誠實하며 進取的인 意志로 잘사는 내고장을 開拓한다.
4. 우리 郡民은 心身을 鍊磨하여 健全한 趣味와 情緒純化로 幸福한 삶을 영위한다.
5. 우리 郡民은 傳統文化를 啓發하고 서로 和合하여 내 故鄉 사랑에 앞장선다.

장 수 의 노 래

No.

보통 속도로

장 수 의 노 래

장 분 안 산 금 악 이 금 악 이 힘 이 찬 맥 박 이 아
 수 령 령 마 은 물 에 의 심 도 종 아
 마 다 기 적 게 울 리 상 의 차 니
 다 고 반 은 것 조 의 이 산
 저 아 다 게 아 름 다 은 우 리 의 떠 진
 아 까 고 사 람 하 면 하 나 로 몽 - 처

행의 씨앗 뿌려, 새 토가 꾸세 장하
 이 땅의 난 연으로 번 영이 루세

고 거룩하다. 삼 절의 고-장 새롭

게 빛을 내는 희망의 장-수

